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어제 저는 오카야마 시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연초 예산인 2014년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 전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미래 안정 확보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큰 포인트는 재원 조정을 위한 기금.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만, 최종 기금 잔액 (약 205억 원)은 지난해 당초 예산편성 시 (약 196억 원)에 비해 증가하여 있어 일단은 안심했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논의한 시책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올가을 오카야마 역 앞의 대형 상업 시설의 진출에 따라 지난해부터 상점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온 몰 개점 후의 내점 의향」을 보면, 오카야마현 내는 물론이고 타 현에서의 내점 의향도 높아져, 오카야마 시내 중심가로 상당수의 고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현재 오카야마현 동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머물고 있는 오카야마의 상권도 개업을 계기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확대가 전망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카야마를 방문하는 많은 고객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심 시가지 내에서의 「회유성 향상」과 「매력 만들기」를 키워드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유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빛나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녀 공동 참가 사회형성을 위한 목표 도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한층 더 많은 사회 참여와 능력 발휘를 촉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여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의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풍기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민간 연구소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 오카야마현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는 47도도부현 중 42위, 정보 발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접충도에서는 46위로, 현 외의 분들에게 오카야마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발신조차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카야마의 역사·문화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카야마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그 매력을 살린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세 가지는 오카야마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이번 한해 특히 힘을 쓰고자 합니다.

덧붙여 이번 메일 메거진에서는 구체적인 시책의 내용은 생략합니다.